



항일여성

2호 | 2017. 3.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남자현의 무명지

시인 **故 정희**



남자현 지사

구한말의 여자가 다 이리 잠들었을진대
 동포여, 무엇이 그리 바쁘뇨
 황망한 발길을 잠시 멈추시고
 만주벌에 떠도는 남자현의 혼백 앞에
 자유 세상 밝히는 분향을 올리시라
 그때 그대는 보게 되리라
 '대한여자독립원'이라 쓴
 아낙의 혈서와 무명지를 보게 되리라

경북 안동 출신 남자현,
 열아홉에 유생 김영주와 혼인하여
 안동땅에 자자한
 효부 열녀 쇠사슬에 찬물을 끼얹고
 여필종부 오랏줄을 싹둑 끊으니
 서로군정독립단 일원이니라
 북만주벌 열두 곳에 해방의 터를 닦아
 여성 개화 신천지 씨앗을 뿌리며
 국경선 안과 밖을 십여성상 누비다가
 난공불락, 왜세의 도마 위에
 섬섬옥수 열 손가락 얹어놓고 하는 말
 천지신명 듣거든 사람세상 발원이요
 탄압의 말뚝에 국적 따로 있으리까
 조선여자 무명지 단칼에 내리치니
 피로 받아 쓴 대한여자독립원
 아직도 떠도는 아낙의 무명지

- 시인 **故 정희**님이 여성독립운동가 **남자현**님께 바친 시 -



남자현(1872~1933. 8. 22)

1932년 국제연맹 리턴조사단이 하얼빈에 도착하자 무명지를 끊어 '조선독립원'이란 혈서를 써서 끊어진 손가락과 동봉하여 전달, 조국의 독립을 호소하였다.

남자현의 애국 義烈(의열) 6가지

1. 일제총독 · 만주국 전권대사 암살행동
2. 도산 안창호 · 일송 김동삼 구출
3. 하얼빈 감옥에서 단식 항거로 순국
4. 단지혈서로 '朝鮮獨立願' 써서 국제연맹에
5. "해방되면 정부에 보태라" 200원 쾌척유언
6. 쫓겨간 독립군 진영, 화합 이끌어

목차

- 02 남자현의 무명지
- 03 목차
- 04 **인사말** 김희선 회장_ '정의는 침몰하지 않는다.'
- 06 김삼웅(전독립기념관장)_ '3·1혁명'의 정명찾기
- 08 최진섭(도서출판 <말> 대표)_ <제국의 변호사 박유하에게 묻다> 서평회
- 10 한홍구 박사_ 김명시 여장군을 그리며
- 12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못했던 그날들의 한 - 역사를 살아오신 염낙원 선생님의 이야기
- 14 **광복 71주년을 기리며...**
- 15 100여년을 통곡하고 서 있는 **통곡의 나무**
- 16 **캐리커처 나도 독립운동가!**
- 17 **항일여성독립운동 선열들이시여!! 잊지 않겠습니다**
- 18 **2016 창립 2주년 기념행사**
- 19 **숨겨지고 묻혀진 여성독립운동사 공부하기** - 누가 이 여인을 아시나요?
- 20 말하는 사진 **박차정 의사 밀양 답사**
- 21 신영숙 (분회 기획위원장)_ 박차정 의사의 독립운동 정신을 새겨보다
- 23 **항일운동 산지 안동답사**
- 24 **안동에서 독립운동에 두 눈을 잃은 여성독립운동가 김락** - 정리 : 이구영 화백
- 26 **시대를 향한 회원들의 발걸음**
- 27 **2016 한해를 돌아보는 자원봉사자들**
- 28 **역사의 함성을 기억하라!**
- 30 **2017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나아갈 길**
- 31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창간호 발간에 도움 주신 분들**

발행일 2017년 3월 1일 통권 2호

발행인 김희선

발행처 (0257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53 (용두동 232-20) 사숙재회관 402호

편집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편집부

디자인 인쇄 디자인포인트

‘정의는 침묵하지 않는다.’



김희선 회장

역사속에 자칫 묻혀버릴 수 있었던 여성독립운동가들의 투쟁사를 이제 역사의 거울 앞에 이렇게라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3년전! 지극히 작은 밑알이 이제 그 싹을 틔워 이제 30개월을 맞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왜놈들이 침탈한 나라를 찾아 후손에게 물려주신 유, 무명 여성독립운동가들의 독립 정신!

최초의 여성의병장 윤희순 지사님의 “왜놈대장 보거라!” 라는 격문의 음성!

일제강점기 손가락 두 마디를 잘라 그 피로 ‘조선독립원’ 이라 써서 국제사회에 알리신 그 용기!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남기신 남자현 지사님의 말씀!

우리의 독립운동사는 아직도 여성독립운동가라 하면 대부분 ‘유관순’ 누나, 한분 정도만 기억합니다.

그런가 하면 남성독립운동가에 비해 여성독립운동가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독립운동사로 보자면 균형을 잃어버린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작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암살>, <밀정> 영화에서 여성주인공들의 높은 활약을 보면서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인식이 미약하나마 회자되어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선열들의 시대정신과 의지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지 끊임없는 질문 속에 실천적 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외치며 지켜가는 광화문 촛불광장의 역사를 직시해야 합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니며 현재이고 미래를 향한 발전의 길임을 우리는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광화문광장과 전국 각 도시의 촛불은 이 시대정신으로 많은 실천적 과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농민 백남기 선생 사건, 개성공단 폐지, 위안부 졸속협정, 사드배치, 한일군사 정보보호 교류 협정추진 뿐만 아니라 친일독재세력 이레 적폐, 이에 부역한 잔재들 척결 등입니다.

연인원 1,100만의 평화적 역사 행진에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마음가짐으로 아낌없이 동참하는 것으로부터 그 요구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극히 미약하지만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이제 3.1절이라는 의미 없는 명명을 **기미3.1혁명일**로 헌법 전문부터 바꿔놓는 숙원사업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문으로는 우습게도 3.1절을 쓰리 컴머 원 스포츠라고 하더니)**

홍보, 교육, 선전 등으로 실천사업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증인으로 남는 일에 게으르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역사에 소외된 대중과 함께하는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는 활동:

찾아가는 역사교육

보여지는 역사

만들어 쌓아가는 역사

를 통해 조직사업의 선명성과 정체성을 지켜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의 작은 발자국이 유,무명 독립운동가들의 소중한 투쟁정신을 기리는 사업으로 시대의 증인으로 남기를 감히 희망합니다.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30개월이란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 물심양면으로 지켜봐주신 민주사회의 여러 어르신들과 본회의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에게 회원여러분들의 이름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아낌없이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많은 후원회원 여러분들과 특별후원금을 내주시는 이행자 위원장, 김영석 원장, 지정숙님, 방국진 사월혁명회 공동의장과 의미 있는 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다짐도 드립니다.

또한 소중한 시간을 내어 기획에 위원으로 활동해주시는 평화 소녀상작가 김서경, 운성, 케릴라미술의 이구영, 김종도 화백, 도서 말 대표 최진섭 선생님 또한 우리여성독립운동사에서 큰 역할을 해내시는 본회 기획위원장이신 신영숙 선생님, 강정숙 선생님, 새로 함께 하신 배성호, 남상만 선생님! 이분들에게 서로 격려 박수를 보내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매 기념행사마다 초혼다례를 주관해주시는 **“화운차례문화원”** 원장이신 전통차례 박남식 박사님과 그 회원님들에게도 아낌없는 박수를 드립니다.

**정의는 침몰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확신하면서 유, 무명의 여성항일 선열들이여!!
그대들의 시대정신을 계승하여 오늘의 한반도 정의의 역사는 위기를 딛고 힘차게
뻗어 나갈 것입니다.**

'3·1혁명'의 정명찾기

김삼웅(전독립기념관장)



정명(正名) 찾지 못한 역사용어

우리는 선열들이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왜적의 총칼에 맞서 싸웠던 3·1혁명의 정명(正名)도 찾지 못한 채 100주년을 앞두고 있다. 한민족은 1910년 8월 29일 국치로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까지 만 34년 11개월 보름 동안 국권을 잃고 왜적의 식민지가 되었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보다 두 배의 세월이 지났다.

선열들이 잔학한 일제와 싸우면서 내세운 목표는 '자주독립'과 '통일민주국가' 수립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외국군에게 넘겨진 전시작전지휘권도 회수하지 못하고, 분단도 해결하지 못한 비자주 분단 상태로 3·1혁명 100주년을 맞게 되었다.

또한 국치를 가져온 매국노와 민족반역 친일파 후손들이 득세하고,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이 역사교과서를 농단하고 역사기관의 책임자가 되는 통절한 시대에 살게 되었다. 먼 훗날 사가들이 이런 우리 시대를 어떻게 평가할 지 부끄럽고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공자의 '정명사상(正名思想)' 이 아니

라도 모든 사물이나 사건에는 거기에 부합되는 이름(명칭)이 따른다. 명(名)과 실(實)이 상부할 때만이 정명의 가치가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경일인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에는 명칭에서 그 의미가 확연하게 주어진다. 헌법을 제정 공포한 날, 빛을 찾는 날, 한글을 창제한 날, 나라를 처음으로 연 날이다. 각종 국가기념일도 모두 명칭에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왜 유독 '3·1절'은 가치중립적인 숫자로 나열되고 있는가. 역사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 당당한 혁명의 자리에 서야할 1919년 3~4월 한민족의 위대한 혁명적 거사를 숫자로 평가절하하고, 아이들과 외국인이 '쓰리 컴마 원 스포츠'라고 번역해야 하는가.

선열들에 대한 모독이고 역사에 대한 가치전도가 아닌가. 3·1혁명보다 8년 전인 중국의 신해혁명과 2년 전의 러시아혁명과 비교할 때 우리는 스스로 평가절하하고, 용어에서 정명을 찾지 못하고 있는가.

먼저 '3·1절'이 아니라 '3·1혁명'이어야 하는 이유부터 따져본다. 혁명(Revolution)이란 용어는 라틴어에서 기원하는데 "마차 바퀴를 완전히 한 바퀴 돌린다"는 뜻이다. 체제 내의 개혁이나 변혁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3·1혁명의 기본가치를 분석하면, 첫째는 자주독립은 선언하고 일제의 식민 지배를 거부하였다. 둘째는 4천 년 동안 유지되어온 봉건왕조 체제를 거부하면서 존왕주의 복벽운동이 아닌 민주공화주의를 주창하였다. 한성임시정부를 비롯하여 상해임시정부 등에서 한결같이 민주공화제를 채택하였다. 셋째는 유사 이래 처음으로 여성이 역사현장에 주체적으로 등장하고, 지역·신분·세대·종교를 초월하여 전개된 범민족적인 항쟁이었다. 세계 혁명사에서 '남녀노소'라는 말이 실제적으로 등장한 것은 3·1혁명이 최초였다. 넷째는 국민의식이 전근대적 신민 의식(臣民意識)에서 근대적 시민의식(市民意識)으로 전환되었다.

독립운동 진영의 '혁명' 용어사용

3·1혁명 기간 국내에는 총독부기관지 『매일신보』 밖에 언론기관이 없었다. 이 신문은 일제의 관제용어인 '3·1 폭동', '3·1소우' 등으로 일관하였다. 3·1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은 약헌(헌법)의 제정 과정에서 일부의 복벽주의를 폐기하고 국민주권에 근거한 민주공화제를 채택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의 「대한민국임시헌장선포문」에서 "한성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에서 의(義)를 일으킨지 30여 일에...”라 하여 ‘혁명’이란 용어를 쓰진 않았으나 그렇다고 ‘운동’이라 표기하지 않았다. 이후에 나타난 각종 선언문·선포문 등에서는 ‘3·1독립선언’, ‘대한민국 원년’, ‘3·1만세’, ‘3·1시위’ 등으로 표기하였다.

1922년 상해의 3·1청년구락부는 「3·1혁명」이라는 제목의 인쇄물을 발간하고, 김규식·김원봉은 1935년 ‘민족혁명당’을 창당하였으며, 1938년 조선민족전선연맹 기관지 『조선민족전선』 창간호에는 ‘3·1대혁명’이란 구절이 있고, 조선의용대 기관지 『조선의용대통신』은 ‘3·1대혁명’이라 표기했다. 조선의용대를 지휘한 김원봉은 1940년 9월의 한연설에서 “3·1혁명운동이 폭발했다”고 언급하였다. 1930년대 이후 독립운동가들 대부분은 ‘3·1혁명’이라 불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41년 ‘3·1만세’ 22주년 기념대회에서 “3·1대혁명운동”이라 쓰고, 같은 해 조소앙이 기초한 「건국강령」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선언은 우리 민족의 혁혁한 혁명의 발인이며...”라 하여 ‘혁명’으로 표기하였다. 임시정부는 「건국강령」 제정 이후 공식 호칭으로 ‘3·1혁명’ 또는 ‘3·1대혁명’이라 썼다.

임시정부는 특히 1944년 제정한 「대

한민국임시헌장」의 서문에서 “무수한 선열들은 피와 눈물로써 민족자유의 회복에 노력하여 삼일대혁명에 이르러 민족의 요구와 시대의 추향에 순응하여 정치·경제·문화·기타 일절 제도에 자유·평등 및 진보를 기본정신으로 한 새로운 대한민국과...”라 하여 헌장 제정에서 ‘3·1대혁명’이라 명시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헌법을 제정할 때 헌법기초위원회는 전문위원 유진오가 마련한 초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초안은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3·1혁명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3·1혁명’을 분명히 명시하고, 30명의 헌법기초위원들도 모두 여기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한민당 계열 일부 의원들이 ‘혁명’이란 용어에 거부반응을 보이면서 국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결정하고, 백관수·김준연·최국현·윤치영·이종린으로 5인 소위를 구성하였다. 친일파 출신 이종린 등이 주도한 소위에서는 ‘3·1혁명’을 ‘기미 3·1운동’으로 전문의 수정안을 마련하고, 국회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제헌국회의 실세이던 이승만이 본회의 사회를 보면서 “혁명이라면 우리나라 정

부를 전복하자는 것인데 원수의 나라에 와 있는 것을 뒤집어 놓은 것은 혁명이라는 게 그릇된 말인데 ‘항쟁’이라는 말은 좋으나 거기다 좀더 노골적으로 ‘독립운동’이라고 그러면 어떻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항쟁’이라는 것도 괜찮고 딱 것도 괜찮지만 혁명이라는 두 글자는 고치는 게 대단히 좋은 말이에요”라고 우기고, 일본제국대학 출신 이주형 의원의 찬성 발언만을 허용, 반대발언을 막은 다음 투표에 부쳤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157인 중 가 91, 부 16으로 통과됨으로써 위대한 3·1혁명은 3·1운동이란 용어로 비칭되기에 이르렀다.

이승만도 재미 망명기인 1942년 워싱턴의 자유인인대회 등의 연설에서 ‘3·1혁명’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해방 후 제헌국회에서 한민당과 친일경력자들에 업히게 되면서 ‘3·1혁명’을 ‘3·1운동’으로 격하시키는 데에 앞장섰다. 이로써 3·1혁명의 박제화에는 친일세력과 역사의식이 박약한 이승만의 농간이 사려 있음을 찾게된다.

다시 개헌론이 제기되는 이 때에 ‘3·1혁명’의 정명을 헌법전문에서 살려야 하고, 이를 위해 민주·민족세력이 이제부터라도 ‘3·1혁명’ 용어 바로 쓰기 운동을 전개했으면 싶다.

〈제국의 변호사 박유하에게 묻다〉 서평회

박유하 무죄 판결 유감-피해자는 울고, 가해자는 웃고

최진섭(도서출판 <말> 대표)



2015년 10월 여의도에서 열린 어느 역사학술대회에 참가한 뒤부터 ‘박유하’라는 이름 석 자에 대해 주목하게 됐다. 그 전에는 말 많은 《제국의 위안부》 저자 정도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세미나의 발제를 듣고 자료집을 살펴보면서, 박유하는 이념적인 친일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세미나 자료집에서 본 박유하의 글 중 인상적인 대목을 한 줄 소개하면 이렇다.

“차라리 독도를 양국의 공동 영역으로 하면 어떨까(.....) 전쟁을 하면서까지, 즉 평화를 훼손하면서까지 ‘지킬’ 가치가 있는 영토란 없다.”(《화해를 위해서》 중에서)

박유하는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독도, 야스쿠니 신사 등 한 일 간 예민한 문제에 대해 걸으로는 ‘화해’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일본의 논리를 전파하는데 앞장서는 학자였다. 그는 17년 전에 펴낸 《누가 일본을 왜곡하는가》에서 스스로 ‘신친일파’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자발적 신친일파 박유하

그 뒤로 박유하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2013), 《화해를 위해서》(2005) 등을 구해 읽고 나서 ‘박유하는 자발적 친일파’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때의 친일파라는 개념은 일본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일본에 호의적인 한국인을 의미하는 친일파가 아니라 전통적인 의미의 친일매국노라든지 반민족행위자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만약 반민특위가 살아있고,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존재한다면 반민족행위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학자로 여겨졌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참에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매대에 진열된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법원에서 34곳 삭제 결정이 내린 뒤에 수정판을 만들어서 배포한 책

인데 마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었다. 《제국의 위안부》를 감싼 붉은색 띠지에는 “《제국의 위안부》를 법정에서 광장으로, 2015년 11월 18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형사기소’라는 광고 카피를 크게 적어 놓았다. 법원으로 삭제 명령 받은 34곳의 표현에 대해 사과, 사죄는커녕 양심수 행세를 하고 있었다. 박유하와 《제국의 위안부》를 펴낸 출판사는 ‘34곳 삭제’를 영광의 상처쯤으로 여기는 듯했다.

교보에서 띠지 두른 삭제판 《제국의 위안부》를 본 뒤, 표현의 자유로 포장하고 피해자 흉내 내는 박유하와 《제국의 위안부》를 비판하는 책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2016년 5월에 《제국의 변호인 박유하에게 묻다 - 제국의 거짓말과 ‘위안부’의 진실》이라는 두툼한 책을 펴냈다. 이 책의 비판의 초점은 박유하와 박 교수를 옹호하는 한국의 일부 자유주의 지식인, 그리고 전쟁범죄를 부정하려는 일본의 우익과 역사수정주의 성향의 일본 인텔리에 맞춰져 있다.

판사가 무죄 선고한 이유

《제국의 변호인 박유하에게 묻다》가 출간되기 직전인 2016년 4월 18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박유하 교수 재판을 참관했다. 검사는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이고, ‘위안부에 대한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내용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교수를 기소했다. 검사의 논지에 구구절절 공감했고, 판사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내릴 수밖에 없을 거라 여겼다.

작년 12월 20일에 검찰은 박유하가 “역사적 사실 의도적 왜곡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주고도 잘못을 반성 안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지난 1월 25일 박유하 교수에게 “학문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사는 “공적인 사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더 넓게 인정돼야 하고 명예훼손에 대해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대법원 판례 기준에 비춰볼 때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박유하는 변호사와 포옹하며 환하게 웃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억울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박유하는 “명판결이었다. 혼자 대적하기 너무 힘들었지만 판사님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줘 감사하다”라며 소감을 밝혔고, 이날 재판에 참여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재판부를 향해 “친일파입니까”라고 성토했다.

‘위안부’ 할머니들 거주 시설인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재판부가 박유하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등 변호사보다 더 변호사 역할을 잘 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이어 “재판부가 책 내용 가운데 5곳을 명예훼손이라고 적시하고도 ‘사회적 가치를 봤을 때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항변 했다. 그리고 안 소장은 “제국의 위안부’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준 2015년 1월 민사재판 판결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할머니 측 법률대리인인 양승봉 변호사는 “1심 판결에 승복을 못한다. 가치분이나 민사소송에서 인정한 부분을 형사소송에서 뒤집어 유감”이라며 “항소가 된다면 더 면밀히 준비하겠다. 재판부가 책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책은 일관되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며 “이는 위안부 문제가 전쟁범죄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국노 처벌하는 법 필요

짧은 지면에서 법률적 논쟁을 다루기는 어렵다. 특히 표현의 자유, 학문의 문제는 복잡한 판단을 요구하는 주제이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몇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첫째, 우리나라 법원이 언제 그렇게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중시했다. 2017년 검찰의 이적표현물 리스트에 《국가와 혁명》(레닌), 《러시아혁명》(E.H.카) 같은 책이 적혀있고, 누가 읽었느냐에 따라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둘째,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서구에서도 헤이트 스피치(차별선동범죄) 처벌은 상식이라고 한다. 집단모욕과 집단명예훼손의 처벌도 당연하게 여기며, 홀로코스트 부정범죄라고 하는 ‘아우슈비치의 거짓말’(아우슈비츠에는 가스실이 없었다는 식의 발언)을 처벌하는 게 일반적인이다. 그렇다면 아우슈비츠의 거짓말에 해당하는 ‘위안부의 거짓말’(박유하처럼 강제성 부인하는 발언)도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닐까?

셋째, 만약 현재의 법으로 매국노에 가까운 친일파를 처벌할 수 없다면 몇 년 전 국회에서 추진됐던 ‘일제 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일명 문창극법)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법(法)이라는 글자의 한자를 풀어보면 물과 같이 흐른다는 뜻이 있다고 한다. 부디 판사들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민심에 부합하고, 상식에 맞는 판결을 내리기를 바란다.



2016년 5월 23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국의 변호인 박유하에게 묻다” 서평회



박유하 재판



김명시 여장군을 그리며

한홍구 박사



“아무 얻은 것 하나 없이 빈약하기 짝이 없는 기억뿐.” 우익 신문 <동아일보>에서조차 ‘조선의 잔다르크’라

고 격찬했던 그는 자신의 일생을 이렇게 요약했다. 그를 인터뷰한 어떤 기자는 그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다. “크지 않은 키, 검은 얼굴, 야무지고 끝을 매섭게 맺는 말씨, 항시 무엇을 주시하는 눈매, 온몸이 혁명에 젖었고 혁명 그것인 듯이 대담해 보였다.” 어쩌면 이 짧은 한 문장이 우리가 그에 대해 알고 있는 전부인지 모른다.

김명시

천만 관객의 마음을 들뜨게 한 영화 <암살>의 여주인공 안옥윤은 한국독립군 상등병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장군이란 호칭으로 불린 여성 전사가 있었다. 해방 직후 여성혁명가들 뒤에 붙는 호칭은 대개 여사였다. 오직 한 사람, 김명시만이 백마 탄 여장군이란 ‘전설’을 남겼다. 문헌자료로 남아 있지는 않고 구전되기에 ‘전설’이라 불렀지만, ‘전설’에 따르면 김명시가 백마 타고 북중국만 누빈 것은 아니었다. 백마 타고 종로거리를 행진했다. 해방 직후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 메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겠다는 감격(심훈, <그날이 오면>)이 실현된 때에 걸맞는 전설이었다. 당시의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여성들 사이에 김명시는 최고의 롤모델이 아니었을까?

‘전설’이 된 김명시의 고향은 마산이었다. 그런데 ‘전설의 고향’ 마산에서 ‘전설’은 거의 잊힌 듯 보였다. 2015년 연말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전국이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 마산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한 200명, 꽤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김명시 이야기를 꺼냈는데, 모두 처음 듣는 표정이었다. 하던 말을 멈추고, 김명시 모르세요? 이분 고향이 어딘지 모르세요? 물어보았지만 놀랍게도 한 200명, 꽤 많은 청중 중에 김명시를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빈약하기 짝이 없는 기억뿐’이란 김명시의 검사가 아니었다. <암살>에서 영감(오달수)가 죽음을 앞두고 한 말, “우리 잊으면 안 돼”는 냉엄한 현실이 되었다.

김명시는 오빠 김형선, 동생 김형윤과 함께 일제 강점기 3남매 혁명가로 이름을 떨쳤다. 이들의 어머니는 3·1운동 때 희생되었다고 한다. 초기 조선공산당의 핵심 멤버였던 오빠 김형선의 도움으로 열아홉 살 김명시는 1925년 말 멀리 모스크바 공산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혼돈의 현실은 김명시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부하도록 내버려두질 못했다. 1927년 4월 장카에섹의 쿠데타로 중국의 국공합작이 깨진 직후, 김명시는 공산주의자들의 시체가 길바닥에 즐비한 상하이로 활동무대를 옮겼다.

상하이에서 김명시는 홍남표, 조봉암 등과 활동을 같이했고, 또 뒤에 깊은 인연을 맺게 되는 무정과도 만나게 되었다. 김명시는 일제의 만주침략 전야인 1929년 말 만주로 활동무대를 옮겨 만주의 조선

공산주의자들을 당시 국제공산주의운동이 강력히 천명한 일국일당 원칙에 따라 중국공산당으로 입당시키는 일에 종사했다. 당시 중국을 휩쓴 강경노선에 따라 1930년 5월 하얼빈영사관을 공격하는 폭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김명시는 그 후 하얼빈에서부터 멀리 상해까지 천신만고 고생을 하며 걸어서 돌아왔다. 얼마 후인 1932년 3월 김명시는 국내로 잠입해 오빠이자 동지인 김형선과 반갑게会后했다. 그것도 잠시, 김명시의 회고에 따르면 “인천으로 와서 동무들과 <공무니스트>, <태평양노조> 등 비밀 기관지를 발행하다가 메이데이날 동지들이 체포당하는 판에 도보로 신의주까지 도망을 갔었는데 동지 중에 배신자가 생겨서 체포”되었다고 한다. 일제 경찰은 <조선사상범검거실화집>이란 책에서 김명시에게 ‘여사’란 호칭을 붙이며 검거경위를 극적으로 묘사했지만, 김명시에 따르면 “임신 중에 체포되어 매를 맞아서 유산”했다고 한다.

김명시 사건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의 한 사례로 당시 언론에 꽤 크게 보도되었다. 이 사건 관련자 중에는 당시나 이후에 이름을 떨친 이들이 꽤 많았지만, 김명시의 사진은 후에 진보당 당수로 이승만에게 사법살해를 당한 조봉암의 사진과 같은 크기로 실렸다. 사건 이름도 주로 조봉암 등 OO명 사건으로 나오지만, 김명시 등 사건이라는 기사도 있을 정도로 김명시는 대선배인 조봉암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혁명가 대접을 받을 정도로 성장해 있었다.

이 사건으로 김명시는 징역 6년형을 받



고 신의주감옥에 갇혔고, 조금 뒤 체포된 오빠 김형선은 8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했고, 동생 김형윤은 적색교원회 사건으로 5년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어 3남매가 같은 해 조선의 북부, 중부, 남부에서 각각 징역을 살았으니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 아닐 수 없었다. 서울, 안양, 대전 등 중부지방에서 징역을 산 신영복 선생은 여름징역의 힘듦으로 우리에게 깊은 깨우침을 주셨지만, 추운 북부지방에서 살아야 하는 징역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같은 신의주형무소에 수감된 조봉암은 동상으로 손가락을 세 개나 잃었고, 김명시도 출옥 후에도 겨울이면 동상이 도져 약바라며 고생해야 했다. 징역을 살고 나온 뒤 조봉암은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자 전향을 했지만, 스물다섯 살에서 서른두 살까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감옥에서 보낸 김명시는 중국으로 망명하는 길을 택했다.

중국으로 간 김명시는 연안의 조선독립동맹에 가담했다. 그가 독립동맹과 연을 맺은 계기도 극적이다. 김명시는 과거 2년 쯤 무정과 같이 활동했는데, 무정은 곧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 그후 무정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 동지들과 추모식까지 했는데 그 무정이 살아서 중국공산당의 대장정을 치르고 연안에서 간부로 활동하고 있었다. 무정은 일본군을 탈출하여 팔로군에 귀순한 조선출신 학병으로부터 조선에서 건너와 적구에서 활동 중인 조선 여성에 대해 듣게 되었는데, 자꾸 그가 과거에 자신과 같이 활동했던 동지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데 무정과 같이 활동하던 시절 김명시는 김희원이란 가명을 썼기에 확신을 가질 수 없었지만, 그의 생김새를 듣고, 또 그가 겨울이면 늘 동상으로 고생하더라 말을 듣고 그가 김명시이란 생각에 밀사를 보내 김명시를 연안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연안으로 들어가는 길도 험난했다. 그러나 곳곳에 조선의용군 병사들이 우리 말로 쓴 항일구호가 적혀 있었다. 머나먼 중국 땅에서 본 조선말 구호... 김명시는 눈물을 흘리며 이 구호를 읽었다 한다. 연안에서 김명시는 16년 만에 무정과 해후했다. 김명시는 조선인 여성들을 조선의용군의 여성부대로 꾸러 지휘했고, 이 때문에 여장군이란 호칭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김명시가 여장군이란 호칭을 얻었지만, 그의 주전공은 역시 지하공작이었다. 그는 베이징 독립동맹의 지하공작 책임자로 활동하다가 해방을 맞았다.

연안파에 속한 동지들은 주로 평양으로 돌아가거나 중국 연변지역에 남았지만, 김명시는 특이하게 서울을 활동무대로 택했다. 연안 출신 몇몇이 유명한 사회경제학자 백남운을 당수로 하여 남조선신민당을 조직했지만, 김명시의 이름은 신민당의 간부명단에서 보이지 않는다. 김명시는 서울에 온 직후인 1945년 12월 조선부녀총동맹 선전부 간부로 활동하고, 이듬해 2월 민주주의민족전선 중앙위원이 되었고, 4월 민전 서울지부 의장단으로 뽑혔으며, 12월 남조선민주여성동맹 선전부장이 되었다. 여기까지가 문헌 상 확인되는 김명시의 주요 이력이다. 남쪽에서 활동하던 진보적 여성혁명

가 다수가 미군정, 또는 대한민국정부의 탄압이 심해지자 북으로 갔지만, 김명시의 이름은 198년 8월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 인민대표자대회에서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뽑힌 360명 명단에도 들어있지 않다.

김명시의 이름은 뜻밖에 1949년 19월 11일자 <경향신문>과 <동아일보>에서 찾을 수 있다. 북로당 정치위원인 김명시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부평경찰서에 구속된 지 이틀 만에 철창 속에서 목을 매어 자살했다는 것이다. 당시 반공검사로 이름을 날리던 서울지검의 오제도와 선우종원이 쫓아가 현장검증 결과 자살로 판명되었다고 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김명시가 북로당 정치위원이라는 것도 북조선노동당 측 자료로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더 믿기 힘든 것은 북중국에서 말달리던 여장군이, 조봉암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조선최고의 여성혁명이 가 붙잡혀간지 이틀 만에 수도관에 목을 매었다는 대목이다. 신문기사에는 없지만, 나는 그가 고문당해서 죽었다고 확신한다. 조선 최고의 여장군이 해방된 조국에서 친일경찰들에 의해 고문당해 목숨을 잃다니... 그런데 고향에서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다니...

3·1운동 때 희생된 어머니에 이어 모두 해방과 혁명의 길에 목숨을 바친 3남매... 김명시 뿐이 아니다. 후손조차 남기지 못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라진 전설들이 너무도 많다. 강주룡, 김명시, 김알렉산드라... 이런 전설을 복원하는 작은 사업을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다.

못했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날들의 한

[역사를 살아오신 염낙원 선생님의 이야기]



부친 : 염은동
호는 추정(秋汀).
2010. 4.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1898 - 1945)
대통령표창, 건
국훈장 독립장

1898~1945. 독립운동가.

호는 추정(秋汀). 강원도 김화 출신. 1919년 3월김화지방의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철원재판소에서 징역 3년을 언도받았다. 1921년에 출옥, 상해(上海)로 망명하여 1923년에 임시의정원의 의원이 되었다.

1931년 12월의 제23회 의정원회의에서 염석로(廉錫輅)·박용철(朴容喆) 등과 함께 다시 의원으로 보선(補選)되었다. 1929년난징(南京)에서 신익희(申翼熙)·김홍일(金弘壹)·윤기섭(尹琦燮)·최용덕(崔容德) 등과 한국혁명당을 조직하였다.

1934년 일본침차 5명을 난징 자금산으로 유인하여 사살하였으며, 1941년에는 광복군 총사령부 부관처 관리과장에 임명되었다. 1944년 6월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 총무과장, 선전부 군사학 편찬위원회 간사에 임명되었다. 1968년 대통령표창, 1977년에는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

1936년 낙양에서 출생. 37년 전쟁 전 해, 1940년 중경으로 가기 전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6세 초등학교 입학.

1945년 광복(해방이 아니다) 후에도 46년 5월에야 중경- 상해 거쳐 귀국.

서울 돈암초등학교 5학년에 편입. 청구동, 장충동, 흥인동 등 5번 이상 이사를 다녔다. 6-10세 싸움 잘 하는 개구쟁이로 부친에게 많이 혼났다. 당시 중국인 아이들과 싸움을 한 것은 우리 조선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한 싸움이였다.

어머니가 이범석의 민족청년단에서 활동하기 위하여 나를 최동호 선생(최덕신의 부)가 운영하던 안양고아원에 맡겨졌으며, 거기서 나와 돈암동에 살던 집을 찾았으나 이사하고 없어 삼청동 김규식 선생 댁을 방문하여 유동열 통위부장에게 맡겨졌다.

통위부장실 급사로 근무하고 정부수립 후 국방부 장관실에 급사로 근무하다가 신성모가 국방부 장관으로 부임한 후 최용덕 차관실 급사로 재직시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부산 국방부 제1국장 이준식 장군에게 의탁하여 “쏘리”로 근무 중 김홍일 장군이 부산 동래중학교에 육군종합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여 그분에게 의탁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50년 서울에서 안춘생 매부인 한지성 서울시인민위원부위원장을 만나게 되어 그의 권고로 평양으로 가게 되었고, 1952년경 월남하여 부산에서 상봉

하였다.

그때 경원누나와 또 상봉했으며 그 후 누나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1955년 5월 8일 신익희(해공)의 대통령 선거를 도우시다 특무대에 체포되었다.

그후 국방경비법 제32조 이적 행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음. 어머니는 국방경비법 제33조, 32조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 13년간 억울한 옥살이하시다가. 1968년 1월 8일 가출옥으로 석방되었다.

그후 김홍일장군이 광복회장으로 부임 되셨고.

오재도 변호사로 하여금 육군본부법무실에 실행신고 신청 후(확정) 복권됨 (1998)1968년 3월 대한공론사 취업에 취업되었고

1969년 결혼. 39년생 김정순 부는 목포방송국 국장, 모는 기독교 권사.

70년 아들 출생, 3남1녀.

1978년부터 현재까지(2017년) 광복회 근무(의전과장, 관리과장, 관리부장, 이사, 현 경기도지부장으로 근무중)

하며 살림살이. 최덕신이 운영하던 안양고아원에 맡겨졌다. 돈암동에서 김규식의 삼청동 집으로 가 살기도 했다. 유동열이 통의부 급사, 정부 수립 후 국방부 장관실 급사. 최용덕이 차관실에 재직시 6.25 한국전쟁 발발.

1연대의 이준식 연대장, 동두천 초성리 길 건너면 북한, 토요일에 타이어 바꾸기를 하며 용돈을 벌었다. 연천이 북한 탱크로 함락, 서울의 전초병, 경찰병이 되어 대구, 부산으로

광복군 유시보? 제주도 폭동, 심사를

받고 51년 5월에야 나옴.(출옥?). 군에 가서 소리 노릇.

국방부 제1국장이 된 이준식, 김홍일 장군은 동래로 감. 사관학교 교장. 시흥. 전투사령부. 제 1군단장, 중학교 교장.

그가 다시 해태 재직시 나는 광복회 회원.

어머니는 6.25 당시 평양. 55년 수복에 상경.

서울시 인민부 위원장 안춘생, 평양에서 52년 남쪽으로.

이시영이 55년 신익희 선거운동. 상해에 있던 김선의, 유교와 기독교. 정동, 새문안교회 등. 연동교회 김종상이 YMCA 활동.

외조부가 승실전문을 나온 1기생. 여운형과 같이 영어학교.

국방경비대 이적행위로 ... 과거사진상위에 신청하여 무죄 입증.

8대 총선 신민당 총재로 국회의원 후보에 추천, 김홍일, 이범석?

육군 군법회의의 판결문 어머니는 무기징역, 조봉암 김연준의 ML당,

55년에 나는 18세. 백일선의 남편. 박수덕 3대 대장. 13년 8개월 형. 20년 확정서?

68년에야 출옥. 1월20일 김신조 사건, 취소?

대구육군형무소, 인천 교도소 등. 어머니는 서대문형무소에서 전향서 쓰시고 마포에서 만남.

조치령. 윤보선 사위, 신규식 아들 등 남로당 제거.

민주당 법무부 장관 외출, 휴가 수원에서 모자. 휴가 나와 석방운동.

67. 12. 25. 사면되어 밤새 울었다.

68. 1. 8. 출옥. 여관, 고아원, 갱생보호원으로 전전. 최덕신이 용인농장 관리인으로. 다시 대한전력공사에 취직. 신순호의 누나, 이력서-한전. 차영조.

친구가 코리아헤럴드(반관반민) 이사장

김봉기, 국방장관 김정렬의 비서실장. 신익희파. 3월 20일에 대한공론사에 취직.

사상보호 이범석. 조판부 과장, 1년도 안 가서 이규락(이후락의 동생) 이사회에 최용성 장군, 현충사 소장 발령. 4급의 소장 비서가 됨.

광복회 경기도지부장이 되어 국정원 강의도 했다.

중심으로 만난 부인. 이순자의 진해여중 동창이다. 장인은 목포방송국장, 장모는 여수무당, 총신대. 68(69)년엔가 결혼. 70년에 아들 출생. 영어를 잘해 조용기 전도사.

광복군의 김동수 장군, 문공부 퇴직 문화재 관리국 과장, 충무공파 등 4개 파.

소장 매점, 6만원 일용직, 회식 등 관리. 사표.

남양주군 장현리 혼자 농사, 정보계? 아들 3, 딸 1. 상경.

보훈처장 장동운 혁명주제, 육사 8기생? 사기 당함. 최덕신 육사교장, 김홍일 5천만원 양계장.

68년 훈장 반납.

남경, 김홍일, 김선의, 성주식, 염은동 기저귀 폭탄, 중경으로

낙양 공군 기술장교로 정비. 엄항섭은 연미당(아버지 애인, 금릉대를 같이 다님)과 결혼.

미국에 간 누나는 32년생이고 여동생 한명은 암으로 먼저 갔고, 내겐 아들 3, 딸 둘이 있다.

김구, 김규식, 김용수, 광수 등 김화의 만석군 땅을 찾음.

후원회 회원. 조완구 테러

병으로 작고하신 아버님 묘는 중경, 1977년에 동작동 국립묘지로 이장.

이범석의 권유 민청련 부녀국장 안하고, 수원 살며 6식구 건사. 20년 전 2004, 5년에 88세 모친 별세. 39년생.

중경에 있을 때 오광심의사와 함께.

광복회 회장 박유철(나와 동갑)의 어머니 최윤신

안양, 충무로 4가 등. 누나 정신여고 졸업.

누이동생, 암으로 일찍 하직, 원망이 있었을 것이다. 숙명 졸업? 보약, 손주 손녀.

아버지-아들 사이 매 맞는 기억.

8대 국회의원 후보 김홍일장군 추천, 당시 신민당 총재.

성남에서 국회부의장 오모씨. 고건 등. 왕따, 민족 반역자로... 빌어야 용서한다. 증오심.

장흥 초대 헌병사령관, 박시장이 낙양-상해로

독립유공자 최값

모친 무기징역. 김창룡의 특무대가 조소양,

뉴텔리 엘리자베스여왕 대관식

광견 천국

고생 일일이 말할 수 없다.

좌익 조선의용대 공헌이 크다???

교육제도 엉망. 특히 역사 교육, 민족정기, 정의가 없다.

통일운동의 방해요소

시민운동-단체 등

유일사상

1948. 9. 백두산 정기, 5천년 역사에 김일성.

집은 현재 수원. 남경필.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大韓民國獨立有功人物錄)』(국가보훈처, 1997)

『대한민국독립운동공훈사(大韓民國獨立運動功勳史)』(김후경, 광복출판사, 1983)

『민족운동총서』3(민족문화협회, 1980)

『독립운동사』4(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한국독립사(韓國獨立史)』(김승학, 독립문화사, 1965)

광복 70주년을 기리며...

왜놈대장 보거라!
우리의 자유를!!!



100여년을 통곡하고 서 있는

통곡의 나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사형장에서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사형당한 후
시신이 나가던 “시구문”에서
각 장르의 예술인들과 시민들의
퍼포먼스를 함께한 난장!!



시구문으로 나가신 독립운동가들의 통곡!
추모의 길을 열어드리다



8.15 71주년 행사에서
열정으로 격려의 말씀 주시는 함세웅 신부님

캐리커처 나도 독립운동가!



캐리커처에 몰두하시는 김중도 화백
2016. 8. 15.



잊지말아야 할 여성독립운동가의 얼굴!
목판화로 그려보기!
집중하시는 신주옥 화백



행사에 참여하시는 김일진 감사, 이행자 위원장,
김상희 국회의원, 함세웅 신부님,



유진규 예술감독 퍼포먼스를 마치고
이승환, 임진택, 박남식, 이행자, 신영숙, 김희선, 곽노현 선생님들과 함께

항일여성독립운동 선열들이시여!! 빛지 많겠습니다

- 이 시대를 살고있는 후손들이



안녕하세요 저는권지후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독립운동
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역사에 생략하여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 되겠습니다
후손들을 기원합니다

여성독립운동가들에게 드리는 시민의 편지
특히의 기쁨을 독립을 위해
얼마나 애써 노력하셨는지
모든것이 생애 기록하셨는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지후입니다
후손들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권민 시대엔
그런 힘든 시대에
아직 힘든 시대를
꼭 수서해 주시길
이진울림

안녕하세요 저는 권지후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독립운동
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역사에 생략하여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 되겠습니다
후손들을 기원합니다

여성독립운동가들에게 드리는 시민의 편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울림

안녕하세요 저는박현찬입니다
많은 후손에게 많은 고맙고
하디는관 힘드셨겠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게 살고 있 후니다 그로 인하여 마하마로 독립을
후손들이 잘 되게 하 마시길 기원합니다

2016 창립 2주년 기념행사

2016년 3월 1일(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여성독립운동순국 추모헌공차레,
게릴라문자아트, 여성독립운동가에게 쓰는 시민의 편지 행사 벌여

2016년 3월 1일 창립 2주년을 맞은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창립 2주년 행사를 치렀다. 이번 행사는 화윤차레문화원(박남식 원장)과 함께하는 여성독립운동순국선열 추모헌공차레, 이구영·신주옥·김종도 세 명의 화가들이 참여한 미술행사, 그리고 시민참여행사인 <여성독립운동가에게 보내는 시민의 편지> 전으로 구성되어 작년보다 더 많은 시민관람객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여성독립운동순국선열 추모헌공차레는 더 세련되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독립



정신



소망 충효



윤희순 의병장의 말씀을 문자아트로 표현한 전경 - 작가 이구영

숨겨지고 묻혀진 여성독립운동사 공부하기

평범한 일상에 젖은 그대들에게!
민족 해방과 조국독립운동의 횃불을 들었던 가슴 시린 진실!
잊혀져가는 민족주의 여성독립운동가들이 답하다!

누가 이 여인을 아시나요?

회차	주제와 강사	여성독립운동가
1강 9월 28일(수) 오후 5시	김 알렉산드리아의 생애와 사상 정철훈(김알렉산드리아 스페인어 교편 저자)	 김알렉산드리아 흑룡강변에서 "여덟 발자국을 걸은 후에 그때 싸라!" 총살 당하기 직전 해방된 조국을 그리며 당당히 죽어간 그의 죽음 앞에 시베리아 기적소리도 잠잠!
2강 10월 12일(수) 오후 5시	여성독립운동가 이화림을 말한다! 박경철(이화림 회고록 역자)	 이화림 이봉창, 윤봉길 의거를 김구 선생과 기획. 의열단 활동을 투쟁적으로 한 조선의병단 대장
3강 11월 4일(금) 오후 5시	코레예바의 눈물의 의미 손석춘(코레예바의 눈물 저자)	 주세죽 피아니스트를 꿈꾸었던 절세미인. 박헌영과 함께 민족해방을 향한 일편단심! 시베리아 유배로 쓰러진 조선의 딸 주세죽!
4강 11월 16일(수) 오후 5시	허정숙의 '붉은 사랑'과 항일민족투쟁 신영숙(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기획위원장)	 허정숙 인권변호사 허헌의 딸 허정숙은 사회주의 이론을 여성운동과 항일 민족 투쟁에 적용한 실천적 여성운동가!



말하는 사진

박차정 의사 밀양 답사

박차정 지사의 묘소 참배

약산 김원봉 장군의 처이며, 독립군 박차정 의사의 초라한 묘소에 참배하였다. 유해는 해방 직후 1945년 12월 송환, 김원봉의 고향인 밀양의 송산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작품으로는 시 '개구리 소재' 와 소설 '철야', 일본어로 쓴 수필집 '가을 아침' 등이 있다



박차정 지사 생가

동래구가 관리하고 있는 박차정 의사 생가는 37㎡ 규모의 기와집으로 2005년 복원됐다. 동래구 홈페이지에서 문화관광해설을 신청하면 해설사의 안내로 현장을 둘러볼 수 있다.



밀양 내일동 해천항일운동 테마거리

2015년 11월 말 조성한 이 거리에는 독립운동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벽화와 조형물 등으로 꾸몄다. 건물 벽면에는 영남권 최초 독립운동으로 꼽히는 3·13 만세운동과 항일운동의 13개 주제로 구성된 그림 등이 펼쳐져 있다.

◀ 벽화로 그린 조선의용대 사진

박차정 의사의 독립운동 정신을 새겨보다

신영숙 (본회 기획위원장)



우리 답사는 밀양역에서 10시경 젤 먼저 만난 이승환협동총무님, 곧 이어 김해에서 마을길 벽화 작업 중에 달려 오신 이구영 작가님, 그리고 밀양시립 박물관 학예연구원 이준설님의 안내를 받으며 밀양시립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곳에서 이른 새벽

서울에서 숨차게 달려온 김희선회장과 김일진감사님, 다독 회원 이은주님과 차를 운전하고 오신 기획위원 이은주님과 그 예쁜 딸 세정이 박물관에 도착하여 그곳 독립운동기념관을 둘러보았다.

1974년 4월 밀양군립박물관으로 일찍이 개관한 그곳에는 고종생대 화석전시관을 비롯하여 밀양 아리랑 등 이 지역의 역사 문화를 다양하게 전시하는 멋진 곳이었다. 우리의 눈길을 잡은 독립운동기념관은 당연히 김원봉 박차정 부부뿐만 아니라 신간회 중앙집행위원 황상규, 조선의용대 이론가 윤세주, 대종교 3대 교주 윤세복 등 밀양이 배출한 독립운동가 23명??의 활동상을 사진과 함께 잘 전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박물관 바깥 너른 광장 한 곳에 그들 흉상을 하나하나 제작해 동글게 모아놓은 곳도 특별히 인상에 남는 곳이었다. 마치 포토존과도 같은 곳이라 사진 찍기에도 바빴다.

시간에 쫓겨 더 자세히 보지는 못한 채 우리는 박차정 의사 묘소를 향해 발길을 제촉했다. 좁은 시골길가에 주차를 한 뒤 더 좁은 산길을 좀 따라 올라가니 시립공동묘지 한 곳에 박차정 의사 묘소가 쓸쓸한 비석 하나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주차한 입구에 작은 표지판이 있었을 뿐 그 곳을 찾아오기는 그리 쉽지

않았고 묘소도 일반인의 것과 거의 같아 비석을 유심히 보지 않는 한 박차정 의사의 묘소임을 알기는 쉽지 않을 것이었다. 그의 독립운동사에 남은 확실한 공적이나 비할 데 없는 그의 항일 투쟁 정신과 용기 등 34세의 짧은 인생이었지만 정말 잊혀서는 안 될 그 삶의 의미와는 전혀 동떨어진 초라한 묘소 앞에 우리 답사자들은 가슴이 먹먹할 뿐이었다. 그나마 회장의 따뜻한 마음으로 마련해 오신 제수를 부끄러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차려 보았다. 먼저 태극기로 산소를 잘 덮고 그 앞에 향을 피운 뒤 차와 떡을 갖춰 놓고 절을 올리며 그 분을 기렸다. 상석도 없고 자리 깔기도 어려웠지만 우리는 마음을 다해 그분에게 예를 올림으로써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생각들을 더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다. 간단히 음복도 하고 기념 촬영도 한 뒤 박 의사와 함께 한 시간이 충분치 못함에 큰 아쉬움을 남긴 채, 작별을 고하고 발길을 되돌려야 했다.

다음에 도착한 곳은 밀양시가 독립운동가들을 기리기 위한 역사문화거리였다. 우선 조선의용대 대장 김원봉의 생가터라고 그 자취도 찾기 어려운 집 주변을 중심으로 윤세주, 황상규 등이 이웃하며 살던 내일동과 내이동에 작은 도랑이지만 운치가 넘치는 해천의 건너편이 독립운동가들의 기념 거리였다. 도랑을 건너는 징검다리가 있었고 그 양쪽에 작은 카페들도 웅기 종기 독립운동가 흔적 사이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듯, 이곳을 찾는 젊은이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것 같았다. 암튼 그곳에는 박물관 마당에 있던 23인의 독립운동가들 사진은 물론 그들이 활동했던 중국의 지역이나 건물, 태극기와 무궁화 등도 아담하게 장식되어 그곳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고 있었다. 또한 독립운동을 벽화와 같은 만화로 극화하여 쉽게 설명해주기도 하고 그곳의 방문객들의 소감도 정성스레 적어 넣은 것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당시의 독립운동가들과 현재 그곳 방문객들과의 교감을 불러 일으키는 듯했다.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민족애, 역사의식에 잠시라도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고 있어 밀양의 높은 시민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 정말 그들 정신을 새기며 역사를 깨우치는 좋은 거리, 멋진 거리로 우리의 부러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다만 그곳을 설명 또는 홍보해주는 리플렛 같은 자료가 없어 돌아와 보니 아쉽다.

다시 우리의 목적지, 박차정의사 생가터를 찾아 동래로 내달았다. 그의 무덤만큼이나 그리 찾는 이가 많지 않고, 때문에 찾아가기도 쉽지는 않았다. 그래도 동래고등학교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많이 헤매지 않고 찾아간 곳은 박의사의 치절한 삶과는 전혀 다른 자그마하고 예쁜 곳이었다. 여성문화해설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반기며 열심히 설명해준 바에 따르면 바로 그곳이 생가는 아니지만, 생가와 가까운 곳에 우선 가옥을 복원하고 그의 유물 등을 수집하여 기념관 형식으로 작은 집을 세워 방문객들에게 그의 자취를 더듬어 알게 해준다는 것이다. 부산시 동래구에서 관리를 하는 그곳은 방 두칸 정도? 안에까지 들어가 볼 수 있게 해 놓았고 마당에는 약간의 나무와 꽃도 살고 있었다. 그러나 방안의 박차정의사 흔적은 초라하기조차 할 만큼 별 게 없었고, 게다가 동상에 총(팔?)이 부러져 있는 모습은 더욱 눈에 거슬렸다. 최근 영화 바람에 방문객이 그나마 전에 없이 많다고 했는데... 여성의 흔적이 것처럼 남은 것이 없으며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암튼 그곳의 유물들 사진 등을 둘러보고 다시 한번 박차정의 사님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의 공식 일정은 끝났다. 덧붙여서 고속도로 옆에 박차정 동상이 시민공원 안에 제대로 세워져 있다고 가보라는 해설사의 이야기가 있었다. 서울로 차로 가는 팀만 갈 수 있었고 기차로 가는 회원들은 시간에 쫓겨 안타깝지만 다음 기회로 미룬 채 부산역으로 가야 했다.

그렇게 하루만에 박차정의사의 유적을 찾은 답사는 끝났다. 돌아오는 길의 마음은 해야 할 일들로 마음이 무거웠다. 우선 답사 목적이 묘지를 보고 나서 그분을 기리는 비석이라도 제대로 세워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그 곳을 마련해준 남편 김원봉(박의사의 시대) 유족들의 의견을 자문하

는 것과 밀양시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우선적으로 거쳐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우리 사업회에서 해야 할 일은 그 뿐이 아니었다. 전국에 여성독립운동가 묘소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우선 정부 포상자의 경우는 보훈처의 자문을 얻어 국립공원 묘지부터 조사해봐야 할 것이며, 박의사처럼 그곳에 있지 않은 예도 알아 봐야 마땅할 것이다. 동시에 수없이 많은 무명 운동가들의 묘소나 그들을 기리는 방법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발길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일부러 하나 하나 해나가는 것이 우리 후손, 그리고 사업회의 의무가 아닐까 하면서...



역사해설가로부터 박차정 의사의 삶에 대해 경청하고 있다.
 촛불 이은주 선생, 이구영 화백, 문해 이은주 선생, 따님 세정, 신영숙기획위원장, 김희선 회장

항일운동 산지 안동답사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의 고택 임청각은 신세동 칠층전탑을 품고 있는 위치에 지어져 있는데 본래 이곳에 탑이 세워질 무렵에는 법흥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한다.

이 고성 이씨 종택인 임청각(臨淸閣)은 보물 제182호로 지정되어 있는 아름다운 옛집이다.

석주 이상룡 독립운동가 임청각 고택 마루에서...



후손 이항증 선생님께서(본회 회원) 고택 앞마당 가운데를 질러 왜놈들이 철도를 지나가게 한 만행을 설명하고 계신다



퇴계이황 선생님 학당 도산서원 안동답사를 마치고 잠시...

안동에서 독립운동에 두 눈을 잃은 여성독립운동가 김락

- 정리 : 이구영 화백 -

항일의 산실 안동

저항시인 이육사, 아나키스트 유림, 자결순국자 이만도, 임정 국무령을 지낸 이상룡, 「밀정」 영화의 주인공인 송강호의 실제 모델로 독립운동사를 통털어 가장 미스테리한 인물 황옥 등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이분들은 모두 안동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독립운동가 들이다.

그 외에도 항일운동가 김동삼, 계몽운동가 류인식, 사회주의 운동가 김재봉, 권오설, 의열투쟁가 김지섭, 김시현

안동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은 지역의 한계를 넘어 국내외적으로 대표성을 가질 정도로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일제 강점기 내내 의병활동과 계몽운동 자결 순국, 무장 항일투쟁, 3.1운동, 청년운동, 농민운동, 사회주의 운동, 학생운동 등 항일투쟁의 전체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숫자

에서도 2009년 321명이 독립운동 유공자로 포상을 받았으며 미포상 독립운동가를 포함하면 무려 1,000명이 넘는 독립운동가들의 산실이라고 불리도 무방할 만큼 많은 족적을 남긴 항일의 도시가 안동이다.

여성독립운동가 김락

이중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굵직한 항일여성이 있으니 그가 김락이다.

김락을 설명하자면 많은 독립지사들의 이름이 거명이 된다.

그의 오빠는 백하 김대락 으로 석주 이상룡과 함께 전 재산을 털어 서만주에 경학사를 세워 독립의 터전을 일구었으며 그의 남편 이종업은 을미의병에 참여한 전사이며 3·1만세운동 직후 파리 베르사유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을 하는 유림단 의거에 동참한 의사이고 시아버지 이만도는 예안의병을 이끌었으며 1910년

국권박탈에 항의해 단식 자결하였다. 만사위는 파락호를 가장한 기막힌 기만술로 독립군의 군자금을 모집했으며 두 아들 동흙과 종흙 또한 군자금을 모금하다가 일제에 의해 투옥되었다.

독립운동가 집안의 딸로 며느리로 아내로 어머니로 살아가면서 수없이 고초를 겪으면서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여성으로 본인 또한 만세운동에 나서 일제에 저항한 여성독립운동가 이다.

일제가 남긴 <고등경찰요사>는 독립운동의 '소굴'로 지목된 안동 지역의 주요 사건과 인물에 대한 수사 과정과 결과를 남겼는데 김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안동의 양반 고 이종업의 처는 대정 18년(1919년) 소요(만세운동) 당시 수비대에 끌려가 취조받은 결과 실명했고, 이후 11년 동안 고생하다가 소화 4년(1929년) 2월 사망했기 때문에 아들 이동흙은 일본에 대한 적의를 밤낮으로 잊을 수 없었다.”

그의 인생을 다룬 창작뮤지컬 김락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잡혀 온 그를 고문하는 요시다를 조롱하는 대목인데 눈을 잃는 고문에도 꿈쩍하지 않은 그의 의기가 보여지는 대목이다.

“사쿠라야, 사쿠라야, 이른 봄의 햇살을 만끽하라, 찰나에 사라지는 너의 운명이 가련하고 불쌍하구나.”



▲ 도산서원 전경



▲ 창작오페라 김락 중에서

답사 내내 꾸물거리는 날씨가 아쉬웠고 그녀의 숨결이 남아있는 향산고택을 일정 때문에 찾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지만 그의 오빠인 백하와 뜻을 같이했던 석주의 생가 임청각을 둘러보는 것으로 위로 삼아 본다.

하지만 위로 삼기엔 임청각의 오늘 또한 아쉬움이 너무 많았다.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인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걸출한 독립운동가의 생가라고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있었으니 집 앞을 잘라먹고 지나가는 중앙선 철로는 현재도 친일권력자들에 가로막혀 있는 독립운동사 발굴의 현장을 보는 것 같아 내내 불편했다.

아프고도 아름다운 집

임청각은 신세동 칠층전탑을 품고 있는 위치에 지어져 있는데 본래 이곳에 탑이 세워질 무렵에는 범흥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한다.

이 고성 이씨 종택인 임청각(臨淸閣)은 보물 제182호로 지정되어 있는 아름다운 옛집이다.

본디 99칸의 대단한 규모였지만 일제에 의해 중앙선 철로와 도로가 지나가면서 50여 채는 헐리고 사라져 지금의 모

습으로 축소되었다고 한다.

건축가 김수근은 임청각을 “인간적인 치수를 반영하여 지은 집이다” 라고 평하기도 하였다.

이 집은 방술상(方術上) 동쪽을 향해 용(用)자 형으로 설계되어 지은 아흔아홉칸 집으로, 건물 가운데 몇 개의 작은 행랑과 중정(中庭)이 있는 이런 모양을 양택풍수(陽宅風水)에서는 길지라고 부른다. 이 집은 동서 양쪽에 문을 만들었으나 남쪽으로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생면부지의 한 스님이 찾아와 이 집을 자세히 살펴본 다음, 남쪽 벽에 작은 문이라도 내면 도난을 피할 수 있다고 권하였다. 오래 전부터 도난 때문에 고심하던 주인은 이 말을 받아들여 작은 문 하나를 남쪽 벽 사이에 달았다. 그 후 자주 이 집을 드나들던 도둑이 이 작은 문으로

집 안에 들어서자 갑자기 눈이 캄캄해져서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집안사람들에게 붙잡혀 추방을 당했는데, 금세 눈이 보이게 되었다. 이런 사실이 근방에 알려지자 '도둑의 눈을 멀게 하는 이상한 문'으로 소문이 나서 인근의 도둑들이 두려워하였다고 한다.

- 신정일의 새로 쓰는 택리지 1 중에서

최순실 게이트의 시작

우연의 일치였을까?

아픈 역사를 간직한 임청각을 둘러보고 온 일행은 점심을 먹기 위해 들른 식당에서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기도 전에 더 큰 역사의 바위덩어리를 만나고 말았다.

음식을 주문하고 둘러앉았을 때 tv에 등장한 인물은 다름 아닌 최순실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막걸리를 연거푸 마시게 되었고 거듭되는 역사의 질곡을 묵도하며 치열하게 살아온 독립운동가들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더욱 또렷이 다가옴을 느끼게 되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잊지 않았다면 그 분들처럼 실천해야 한다고

그리하여 광장의 촛불은 오늘도 그토록 아름답게 타오르는 것이라고....



시대를 향한 회원들의 발걸음

‘밀정’ 기획 이진숙 대표 “일제 경찰 출신 독립운동가 황옥을 알리게 되어~”

745만명을 돌파한 영화 <밀정>은 일제강점기 경찰 신분으로 의열단에 가담했던 실존 인물 ‘황옥’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황옥은 상업영화 두 편을 연거푸 실패하면서 영화를 포기했던 이 대표를 다시 영화로 끌어들었다. 그가 영화와 인연을 맺은 건 1994년이다. 당시 프랜차이즈 비디오 대여점 ‘영화마을’을 운영하면서 본사 기획업무를 병행했던 그는 비디오 대여점이 사양길에 접어들자 영화마을 가맹점 주인들을 주주로 참여시킨 영화사를 차렸다. 이 대표는 “의열단원이었던 유자명 선생은 ‘김원봉이 황옥은 의열단이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했고, 박태원의 <악산과 의열단>에서는 ‘김원봉이 황옥은 일제 경찰이 맞다’고 했다”면서 “사학자 황용건씨의 ‘황옥의 양면성 연구’라는 논문을 읽고 ‘황옥이 의열단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영화 기획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진숙 영화사 하얼빈 대표는 “실화를 영화화하는 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건과 공간”이라며 “앞으로 알려지지 않은 여성 항일운동가들을 다룬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평화의 소녀상 조각가 김서경·김운성 “통일 상징물은 꼭 만들고 싶다”



평화의 소녀상 조각가 김서경·김운성 부부를 만났다. 7월 22일부터 3일간 서울 시청앞에서 열었던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한 프로젝트전’라는 전시회가 너무 좋아 인사동에서 아라아트에서 연장 실내 전시가 마련되었다. 부부는 주한미군이 사격장으로 쓴 경기도 매항리에서 구해 온 포탄과 탄피에 철골을 붙이고, 꽃을 새겨 평화의 작품을 만들었다. 물론 이 전시 외에도 그의 상징작 평화의 소녀상도 전시하고 있다. 두 사람은 동학 100주년 무명 농민군 추모비(1994년), 민족 시인 채광석 시비 조형물(2000년),



미선·효선 추모비(2012년), 독립운동가 조문기 선생 기념비(2014년) 등 정치·사회·역사적으로 ‘의식화’된 작품을 많이 만들었다. 하지만 서울역사박물관 앞 전차에 만든 ‘전차와 지각생’(2010)과 같이 서민의 토속적 삶도 형상화하기를 좋아한다.

‘더러운 잠’ - 이구영 화백



논란에 휩싸였던 이구영 작가(50)가 후속 작품 ‘더러운 잠’ 2탄 ‘블랙’을 10일 발표했다. 마네의 ‘올랭피아’를 다시 패러디한 ‘더러운 잠’은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전시되었는데 보수 단체 회원들에 의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마네의 올랭피아와 조르조네의 잠자는 비너스,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를 절묘하게 결합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패러디 형식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그대들을 기억할 것이다

역사는....



2016

한해를 돌아보는
자원봉사자들



백사의 함성을 기억하라!

돌맹이 하나
피 한방울
던지지 않고
흘리지 않은

명예혁명!!





시대가 탄압한다고
주눅들면 예술가가 아니다
임옥상 화백어록

연대활동

- 국민행동 기자회견
- 한민족평화통일연구원
- 순국선열 애국지사 후손 향의 성명
- 통일맞이
- 민주행동 민주포럼
- 민주평화 포럼
- 바른역사 교육 협의회
- 민주화 가족실천 협의회
- 반 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모임
- 한일군사 정보보호교류협정 기자회견

국민이 촛불을 들다

10.29 (토) 1차 촛불 민중집회의 출발

- 11.5 2차
- 11.12 3차
- 11.19 :
- 11.26 :
- 12.3 :
- 12.10
- 12.17
- 12.24
- 12.31
- 1.7
- 1.14
- 1.21
- 2.4
- 2.11
- 2.18 16차

2017년 사업계획

교육연구 사업

- 1. 교육 강좌**
 - 1) "역사학당" : 찾아가는 역사교육(대학생, 직장인 등)
 - 2) 여성독립운동가를 위한 글짓기 대회 등
- 2. 독립운동가/후손 발굴 및 구술사업**
 - 1)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안했던 그날의 이야기 모임
 - 2) 구술채록 : 독립운동가 후손(1945년 전후 출생) 녹취 작업
 - 내용 : 독립운동하셨던 분과 그 가족에 대하여, 후손으로 살아 온 이야기
- 3. 답사(국내. 외) 여성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찾아**

홍보 출판 사업

- 1. 「항일여성」 발행**
- 2. 대학, 중고교 동아리와 연결**
(예: 대전대학교 여우회동아리 활동)
- 3. 마스크트, 만화, 영상제작**
- 4. 영상제작**(여성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는 다큐멘터리)
- 5. 사이버 뮤지엄 사업**

기념·현창 사업

- 1. 3주년 기념행사**
 - 1) 제목 : 3.1혁명 97주년 기념
- 2. 여성 독립운동가 도로명 청원사업**
 - 1) 내용 : "왕산로" (석주 이상용)와 같은 "남자현로" 등 도로명 청원 지자체, 관련 단체 연대, 서명운동, 언론 등과 협의
- 3. 광복 72주년 8월 행사**
 - 1) 유.무명 여성독립운동가 추모(화운차레 문화원)

연대사업

- 1. 3.1혁명 정명 청원사업**
 - 2. 역사교과서 국정화**
 - 3. 조선 총독부 사관 해체 국민 운동부**
 - 4. 한민족평화통일연구소(신한대학교)**
 - 5. 민주행동 민주포럼**
 - 6. 바른역사 교육 협의회**
 - 7.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
- 기타 : 민주평화 통일 사업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와 함께하는 사람들

지도위원 | 김병인 김삼웅 김시명 라종일 문성근 박남식 박순경 방국진 배기성 신은영 염락원 유홍준 윤종옥 이기탁 이덕일 이효재 임옥상 임진택 임원영 정동익 정원채 최종원 황기흠

회 장 | 김희선

이 사 | 김경옥 김명연 강정숙 김애영 김희선 박정희 손 윤 이행자 신영숙 신은영 양경숙 이덕일 이미경 이민석 이주한 임기상 김선현 최성자 홍정석

감 사 | 김일진 김진현

기획위원회 위원장 | 신영숙

기획위원 | 강정숙 김서경 김운성 남상만 박경철 배기성 이구영 이은주(문해) 이주한 임기상 정철훈 최진섭

홍보교육위원회 위원장 | 홍정석
위원 | 김경실 나예진 박남식 박정희 이미경

사업부위원회 위원장 | 이찬희
위원 | 김경옥 김명연 이승환 이은경 이은주

자원봉사단장 | 김진현
단원 | 박정희 이은경 이은주 이은주(문해) 이찬희 주영석

사무국 | 총무 이승환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개인회원

강민석 강병국 강성분 강성은 강성종 강연례 강영심 강윤정 강정숙 강지웅 강해수 고영명 곽노현 곽태원 구미정 구숙희 권태균
 김경복 김경순 김경실 김경옥 김광미 김광희 김남철 김명배 김명연 김명옥 김민성 김병국 김병기 김병인 김삼웅 김상덕 김상현
 김선현 김성례 김성훈 김세원 김수산나 김수지 김시명 김애영 김애희 김연표 김영선 김영섭 김영주 김영한 김영훈 김예진 김윤경
 김은미 김인호 김일진 김자동 김정화 김종민 김종수 김진숙 김진현 김진희 김창한 김학진 김학현 김현아 김혜림 김희선 남상만
 남현숙 노명희 노우숙 노재훈 라종일 문병호 문병호 문연국 문인철 문정숙 문향숙 민경선 민향선 박경목 박경수 박경철 박남식
 박명숙 박상현 박소영 박수연 박수진 박순경 박영민 박용주 박유식 박은혜 박장우 박재홍 박정민 박정신 박정철 박정희 박진영
 박창식 박 한 박혜은 방국진 방승환 방영철 배성호 배유석 백정란 박혜숙 서쌍원 서수용 설 훈 성기한 성기홍 손덕수 손 윤
 손희영 송보경 송승현 송호근 송희수 신민희 (고)신영복 신영숙 신영철 신은영 신인령 신재남 신중근 신현덕 안정숙 안현석 안희정
 양경숙 양동준 양미강 양범섭 양숙자 양진호 염낙원 오세운 원윤재 유경숙 유백용 유승희 유인경 유종일 (고)유중하 유준상 윤정란
 윤정수 이경진 이기담 이기탁 이남원 이덕일 이동일 이동중 이동철 이동훈 이만열 이미경 이민석 이상덕 이석문 이석현 이상래
 이성문 이성한 이수빈 이순형 이승환 이영애 이영주 이우종 이은경 이은주 이은주(문해) 이정옥 이종애 이종찬 이주한 이준근
 이지은 이진규 이태현 이향중 이현숙 이효재 이희경 이희수 이희일 임기상 임미영 임수경 임술기 임승옥 임쌍금 임영환 임용석
 임지하 장기복 장다솔 장유식 장정수 전기호 전병인 전영복 정동익 정명섭 정문식 정성문 정성호 정세균 정순영 정승환 정영진
 정용희 정우찬 정유경 정원채 정의훈 정진술 정춘숙 정현주 조길성 조범성 조성갑 조성언 조영채 조원호 조정식 조현보 차영조
 천병태 천혜진 최광호 최규성 최문옥 최성자 최성환 최은정 최은규 최창인 최황열 하지완 한기영 한의성 한혜미 함세웅 허성관
 허순정 허은주 허인자 홍사립 홍소연 홍정석 홍철의 홍희정 황기흠

♥ 단체회원

광복회 김학규오광심기념사업회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대한요가스포츠연맹 민족문제연구소 민주
 화실천가죽운동협의회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사월혁명회 서울시요가연합회 여성평화외교포럼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우당이회
 영기념사업회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인쇄출판새물 전태일사이버노동대학 지광회 통일맞이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회 평화통
 일지도자과정1기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한국여성전화 한민족독립정신연구회 한민족평화통일연수고 해림교회 화윤차례문화원

• 발행인 : 김희선 • 발행처 :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 발행일 : 2017년 3월 1일(2호)

후원안내 / 회원가입 :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합니다.

- 후원계좌 : 국민은행, 598001-01-274481 김희선(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 가입문의 : (전화:02)924-0660, 팩스:02)924-0670, 메일: herstory0301@gmail.com), 카페 : http://cafe.naver.com/herstory0301
 페이스북 : facebook.com/herstory0301

- 주 소 : 0257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53 (용두동 232-20) 사숙재회관 402호 / 향일여성 2호 표지설명 : 조선의용대 통신 삽화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소식지 **향일여성 2호**를 응원합니다.

동대문문화원 원장 **김영섭**
 4월혁명회 공동의장 **방국진**

이행자 前 서울시의원
황기흠 지도위원

